

---

#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조사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활용\*

배 효 원\*\*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조사 검토
    - 1. 일제강점기의 가야고분 조사의 목적
    - 2. 일제강점기의 가야고분 조사의 성과와 의의
  - III.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
    - 1.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의의
    - 2. 일제강점기 공개 자료의 활용 방안
  - IV. 맺음말
- 

---

\* 이 글은 2022년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접수일: 2022. 9. 30. 심사완료일: 2022. 10. 31. 게재확정일: 2022. 10. 31.

##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가야고분은 신공황후 삼한정벌 기사나 임나일본부 기사를 근거로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주장하는 ‘남선경영론’이나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고증하기 위해 일본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창녕·함안·고령 등의 왕릉급 고분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자료 공개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나아가 이를 재검토하고 재평가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한 고고학적 활동이 한국고고학의 범주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구자 개개인의 역할이며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한국고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제강점기 자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우리 세대의 몫이며 남겨진 과제이다.

### ■ 주제어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공개사업, 가야고분, 국립중앙박물관

# I.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 공개사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와 도면·지도 등의 자료가 정리되어 공개되었고 유리건판 총 38,170장, 유리건판 자료집 12권, 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 시리즈 41권(2021년 기준)이 발간되었다.<sup>1)</sup>

주지하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는 우리의 의도와는 별개로 100여 년 전 일본인에 의해 생산된 자료이며, 당시 발굴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약식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료의 정리만으로도 지난(至難)한 작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손으로 정리해야만 하는 과제이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듯 선결과제를 해결해야만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고고학적 활동이 한국고고학의 범주로 평가될 수 있는가<sup>2)</sup> 하는 물음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국립중앙박물관만이 할 수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끝까지 잘 완수해 내야만 하는 과제이기에 많은 연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사실 자료 공개 사업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가야고고학의 경우 자료 공개 사업을 통해 창녕·함안·고령 등 가야 고분조사 자료가 다수 공개되면서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그 결과 가야고고학의 외연이 넓어지게 되었다. 자료 공개 사업 이전에는 자료를 입수한 것만으로도 성과가 되었고 공개만으로도 논문이 되었다. 하지만 자료 공개 덕분에 일제강점기 자료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특히 국립김해박물관의 창녕 고분군 유리건판 자료집을 시작으로 창녕 교동 7호분과 89호분, 함안 말이산 4호분(구 34호분) 등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발굴조

1) 상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학술·출판-일제 강점기 조사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2) 한국고고학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 고고학으로 취급해야한다는 입장(이성주 1995; 정인성 2010; 김대환 2017), 일제강점기 조사의 해석과 인식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한국고고학의 전사 前史로 보는 입장(이기성 2013, 2020), 실물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의 학문적 특성상 지정학적 위치에 주안을 둔 속지주의적 관점에서 한국고고학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김수환 2013)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본적으로 자료의 검토와 재해석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3) 이기성(2021)의 최근 논고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조선총독부박물관 관련 일반 연구논문 115편, 학위논문 73편으로 총 188편 중 대부분이 2010년대에 발표된 것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2021~2022년 8월에 발행된 일반 연구논문은 16편, 학위논문 4편으로 일제강점기 자료의 분석 자체가 한 분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보고서가 간행되고 창녕 교동 7호분, 함안 말이산 25호분 등 일제강점기 조사분에 대한 재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학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과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면서 이와 연계된 특별전, 학술대회 등이 개최되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 1단계(2013~2022년) 중 가야고분 조사 분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성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연구자의 입장과 지자체 문화재담당자의 입장으로 자료 공개 사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Ⅱ.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조사 검토

최근,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지난 10년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구어낸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2장에서는 특히 일제강점기 가야 고분조사에 대해 검토해보고, 가야 고분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제강점기의 가야고분 조사의 목적

일본인 연구자들은 『日本書紀』와 『古事記』 등의 고서 연구를 통해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해왔으며 신공황후 가야 삼한정벌 기사나 임나일본부 기사를 근거로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주장하는 ‘일선동조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확립되었으며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정복하고 지배하였다는 ‘남선정영론’이나 ‘임나일본부설’의 실체를 고증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호기심이 맞아 떨어진 정치적·학문적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고고학적 활동이 순수한 학술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또한, 조사 성과물에만 주안점을 두었기에 고분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분을 선택하여 유물 수습 위주의 조사만 이루어졌으며, 조사 후 보

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도굴피해를 양산했다는 점이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고고학적 활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법적·제도적 절차에 의해 치밀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에 의해 관 주도로 행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고적조사는 체계화된 기록방법이 오히려 일본보다 발전하여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吉井秀夫 2006)처럼 일본에서 행해진 발굴조사보다도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론에 의한 조사라는 견해도 있으며 유적 발굴보고서가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이었다는 평가(早乙女雅博 2010)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진행된 다이쇼(大正) 초년初年까지의 발굴을 “졸속주의 유물채집식”이라는 발굴 당시의 평가(藤田亮策 1933) 또한 있기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고고학은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조사와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조사 주체는 일본인 연구자들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행해진 조사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고고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행해진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기에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행해진 고고학적 조사와 그 결과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고고학 자료를 편향되게 분석하였고 실증주의 사관을 내세우면서도 그 해석을 왜곡하였으니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조사와 그 결과물이며 그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조사활동이기에 연구결과물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흔히 일제강점기의 고고학적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비판적인 접근에 대해 이분법적의 대립의 틀로 제시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이 피력된 바 있다. 단순한 긍정론·부정론 등 이분된 주장의 대립은 자칫 대전제<sup>4)</sup>를 흔들리게 하거나 논점을 흐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성주 2013)이다.

결론은 한반도에서 행해진 일본의 고고학적 활동과 자료를 식민지고고학의 산물로 치부하여 폐기하거나 선진적인 학문이기에 미화하면 안된다는 것이며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조사활동과 그 결과물에 대한 재검토와 재평가가 우리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공개된 일제강점기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다양한 견해의 피력을 통한 저변의 확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4) 친일과 반일의 대립,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과 민족주의적 입장의 대립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은 제국주의 침략은 정당하지 않다거나 발굴하기 어려운 적석목곽분을 제외하고 신라·가야의 대형분 태반을 속도전으로 발굴하고 도굴에 방치했음은 정당치 않다는 대전제를 흔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2. 일제강점기의 가야고분 조사의 성과와 의의

최근 한국고고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고분조사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5)</sup> 해방 이후 오랫동안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성과가 연구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연구가 본격화되었던 것은 오히려 의아할 정도이다.<sup>6)</sup>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강점기의 고고학 조사활동을 집성하고 체계화하는 연구(이순자 2009 등)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발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연구(이희준 2010; 이성주 2013; 정인성 2010 등), 문화재 조사주체인 조선총독부 및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성격과 인식, 법률과 제도, 문화재 보호정책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이기성 2010, 2018; 오영찬 2022 등)가 이루어졌고 이는 자연스레 한국고고학의 토대를 이루는 연구 관점이나 방법론에 대한 성찰(이성주 2013; 김용성 2010; 정인성 2010; 김대환 2017)로 이어졌다.

이렇듯 2000년대부터 짧게나마 이어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고고학적 활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고고학의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일제강점기 가야고분의 조사<sup>7)</sup>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일본의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행해졌다. 일본 제국주의가 내세운 식민사관의 핵심논리는 ‘타율성과 정체성론’, ‘과거회기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바탕이 되었다.

영남지역의 가야권역 고분 발굴조사는 1900년대부터 1930년대 전반 무렵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대두된 정한론征韓論을 바탕으로 그 전부터 대륙진출을 위한 조선침략의 사전 기초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청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은 조선침략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즉, 한일합병 전부터 비공식적인 조사가 있었으나 관학에

5)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을 중심으로 이성주(1995, 2013), 이기성(2010, 2013), 이주현(2013, 2019), 박천수(2015, 2021), 정인성(2010, 2013), 이순자(2007), 김수환(2013, 2015), 김대환(2017)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재평가·재해석 되고 있다.

6) 이희준(1990), 신숙정(1993), 이성주(1995) 등에 의해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일제강점기의 조사활동과 그로부터 나온 담론들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식민사관에 대한 논의를 피상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이성주 2013).

7)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리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가야 자료 총서 일제강점기 자료편(2018)과 영남고고학회 단행본(2013)에 수록된 내용 및 김수환(2015), 이주현(2019), 조성원(2021)의 논고를 참고하였다.

특히 연도별 조사자의 성향과 발굴성과, 일화, 세부적인 조사 내용 등의 내용은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한 영남고고학회의 단행본을 참고하길 바란다. 창녕·양산지역(김수환), 고령지역(신종환), 함안·진주지역(이주현)의 조사 내용이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의한 공식적인 고고인류학적 조사는 1900년 야기 소자부로(八木奘三郎)의 고적조사 연구기행이 최초의 조사이다(고정용 1996). 그는 『한국탐험일기』를 남겨 “한국 조사에 대해 도항자들에게 일조를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였으나 조선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던 당시 일본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이순자 2009).

가야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는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세키노 다다시는 1902년부터 일본정부의 명을 받아 한국의 고건축 조사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관찰하라. 깊이 얹더라도 관계없다.”라는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장 다쓰노 긴고(辰野金吾)의 명령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조사한다. 그 이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자 통감부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 탁지부 차관이었던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에 의해 1909년 세키노 다다시의 고적조사가 발의되었다(梅原末治 1972). [표 1]은 1900년부터 해방 전에 실시된 가야고분 조사 현황이다.

표 1.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조사 현황

연도	유적	내용	조사자	참고사항	재발굴/재보고
1900	한반도 전역	현황조사	八木奘三郎		
1902	한반도 전역	답사	關野貞		
1910	고령 지산동고분군	소형분 2~3기	關野貞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	2·3호분/7호분			
1914	고성 송학동고분군	1A-1	鳥居龍藏	現1호분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분 1기		現1호분	
1915	고령 지산동고분군	갑·을·병호분	黑板勝美		
	함안 남문외고분군	석곽묘 1기			
1917	고령 지산동고분군	12·18·22호분	黑板勝美	現56(12) 現71(18) 現131?(22)호분	
	선산 낙산동고분	28·105·107호분	今西龍		
	함안 말이산고분군	5·34호분	今西龍	現25호분(5) 재발굴 現4호분(34)	25호분 재발굴·보고 34호분 재보고
1918	창녕 교동고분군	21·31호분	濱田耕作 梅原末治	고적조사보고1922 現교II-29호분(21) 現교II-14호분(31)	
	고령 지산동고분군	구1·2·3호분		現409(1) 現408(2)	
	함안 말이산고분군	谷井1·2호분	谷井濟一	現13호분(谷井1.) 現12호분(谷井2)	13호분 재발굴·보고

연도	유적	내용	조사자	참고사항	재발굴/재보고
	창녕 교동고분군	5·8호분	谷井濟一	現교 I 군5~8호분	7호분 재발굴·보고 7호분 재보고
1919	창녕 교동고분군	10~12·89·91호분	谷井濟一	現교 I 군10~12호분 現교 II-10호분(89) 現교 II-11호분(91)	89호분 재보고 10호분 재보고 中
1920	고령 지산동고분군	절상천정총	谷井濟一		
	양산 북정리고분군	10호분	馬場是一郎 小川敬吉	부부총(10호분)	10호분 재발굴·보고
1922	고령 지산동고분군	1·2·3호분	梅原末治		
1931	창녕 교동고분군	116·117호분	小泉顯夫	現교 II 군15·22호분	
1939	고령 지산동고분군	39호분 등 4기	有光教一 齊藤忠	現5호분(39)	

일제강점기의 발굴조사에 대한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지역에 따라 3~5기로 나누며 공통적으로 1909년 세키노의 조사,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 설치,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 설립을 중요한 기점으로 삼는 경향이 확인된다. 가야고분 조사의 경우도 4기로 나누는데 이순자(2007)는 1916·1920·1931년을 기점으로, 조성원(2021)은 1909·1916·1931년을 기점으로 각각 4기로 나눈다.

사실 가야고분 조사의 경우 누가 조사했느냐에 따라 조사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1916년 세키노 다다시를 중심으로 한 고적조사위원회 설치 이전을 1기, 고적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고적조사 5개년 계획(1916~1920)이 수립·시행되면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이마니시 류(今西龍),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본격적으로 고적조사를 실시하는 2기,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과 1924년 고적조사과의 폐지로 인해 고적조사사업이 위축된 1925년 이후부터 해방까지를 3기로 나누어 시기별 조사 성과를 살펴보았다.

## ▷ 가야고분 조사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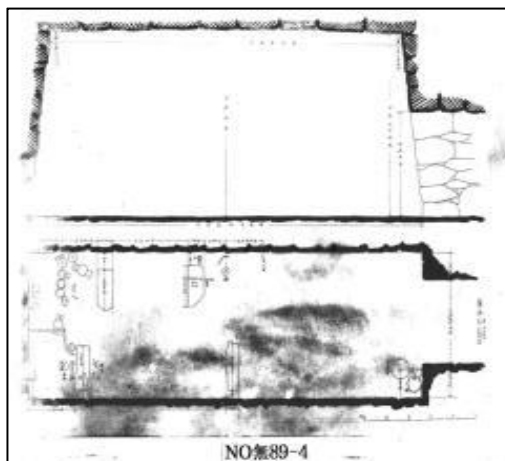
1기는 세키노 다다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구로이타 가쓰미에 의해 이루어졌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 세키노 다다시는 이미 1902년 한반도 전역을 조사한 경험이 있었기에 통감부 탁지부건축소 고건축물 조사 촉탁으로 임명되었으며 공학사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와 고고학분야 야쓰이 세이이치를 조수로 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감행하였다.

가야고분군은 1910년 고령 지산동고분군,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이 발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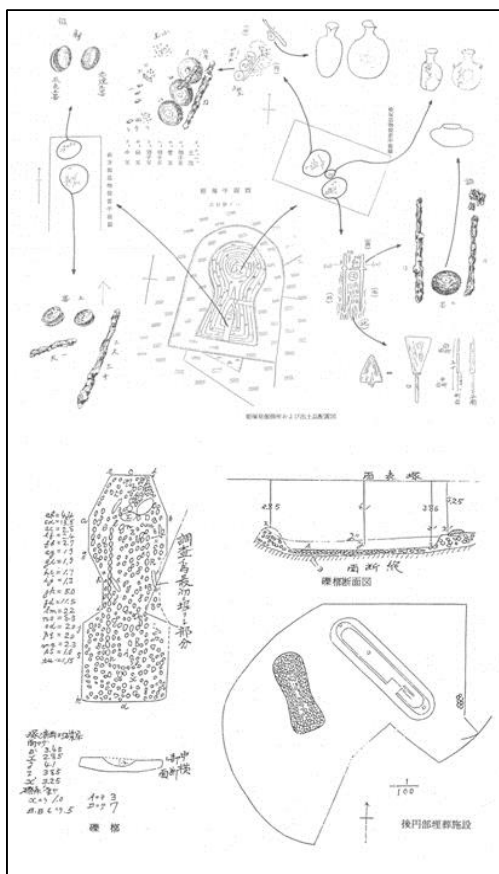
당시 조사에서 건축사학자 세키노 다다시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유적을 조사해야 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 내에서 고건축물 조사시 작성하였던 실측법을 식민지 조선의 고분조사에 도입하였으며 평면도·단면도·입면도에 축척을 표시하고 계측치를 기록한 건축설계도와 같은 도면을 [도 2]와 같이 남긴다. 당시 전개도와 같이 표현한 세키노 다다시의 건축학적 도면작성법은 일본 내 고분조사에서도 아직 채용되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학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sup>8)</sup> 하지만 고분조사의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봉분의 규모, 축조방법, 석실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고분조사에 대한 인식과 개념 없이 부장유물의 수습에만 중점을 둔 조사였음이 명백하다.



도 1.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 전경



도 2. 진주 수정봉 2호분 평면 및 입단면도



도 3. 宮崎縣 西都原古墳群(1915)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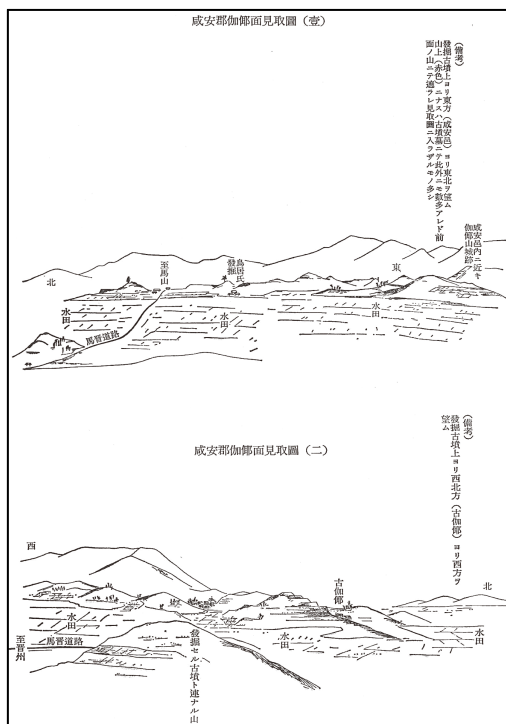
8) 이주현(2013)의 논거에 의하면 1912년 실시된 宮崎縣 西都原古墳群의 조사에 구로이타 가쓰미, 이마니시 류, 하마다 고사쿠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30기의 고분이 조사되었으며 1915년 일부 고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으나 동시기 한국에서 세키노 다다시가 작성한 도면에는 이르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낮았다고 한다.

이 무렵 도리이 류조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의뢰로 국정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사료조사 史料調査를 진행하였으며 한반도 남부지역의 고고학조사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보고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유리건판 사진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사와 순이치(澤俊一)와 팀을 이루어 1914년 고성 송학동고분군 1A-1호분(현 1호분), 함안 말이산고분군 39호분(현 1호분)을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로이타 가쓰미는 1915년 도쿄제국대학에서 파견되어 고령 지산동고분군 갑·을·병호분과 함안 남문외고분군 석곽묘 1기를 조사하였다. 통역과 사진기사를 동행하고, 조선총독부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로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물증을 찾기에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거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sup>9)</sup>



도 4. 고성 송학동고분군 전경



도 5. 함안 말이산고분군(상: 가야읍 일대, 하: 말이산고분군) (黑板勝美, 1974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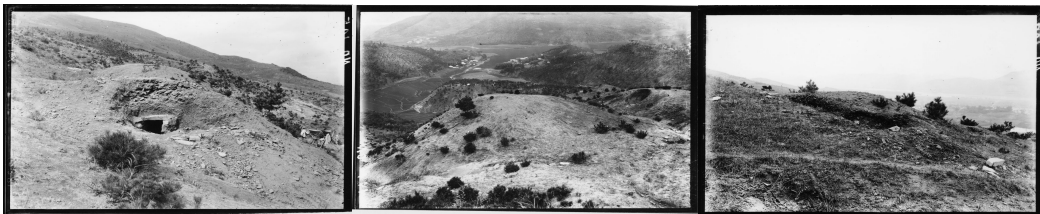
9) 김수환(2013)은 구로이타의 1915년 조사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그의 출장에 대해 후하게 대해 주었고, 학무국 편집과의 가토가 그의 조사에 통역으로 참가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사료조사의 일환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 ▷ 가야고분 조사 2기

2기는 조선총독부가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시작한 시기이다. 1916년 7월 고적조사보존규칙과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 산하에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선의 고대사회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적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사군의 치소인 낙랑군 및 일본과 관련이 깊은 신라·가야고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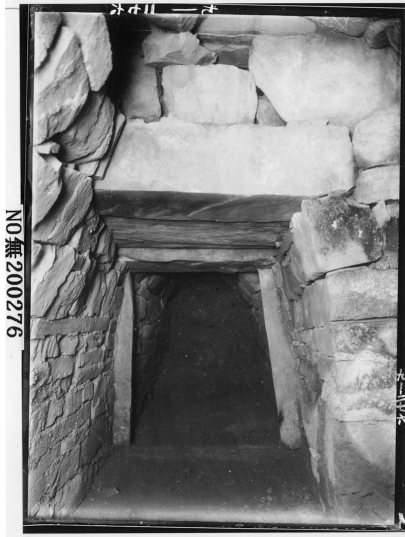
당시 고적조사위원은 1916년 당시 세키노 다다시, 구로이타 가쓰미, 도리이 류조, 이마니시 류 4명과 보조 촉탁 구리야마 순이치, 야쓰이 세이이치, 제도·사진 담당 4명이 네 팀으로 나누어 팀별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야고분군은 1917년에 구로이타 가쓰미, 도리이 류조, 이마니시 류에 의해 경상북도 고령과 성주, 경상남도 함안과 김해·동래·진주·합천·거창·통영·고성·밀양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1918년에는 새로 고적조사위원이 된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 야쓰이 세이이치에 의해 고령·성주·창녕·고성·산청·함안·합천·진주의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조사원은 6명으로 조사위원 1명당 측량·제도·촬영 등을 보조할 담당자 2명씩을 배정하였다. 2기의 조사지역은 고령과 함안, 창녕, 양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령지역은 1917년 구로이타 가쓰미가 12·18·22호분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56·71·131(?)호분으로 비정되고 있다(신중환 2013). 1918년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에 의해 1·2·3호분이 조사되었으나 보고서에 주산 능선의 남단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보고서와 유리건판사진을 대조한 결과 1호분은 409호, 2호분은 408호, 3호분은 대가야통문 부근의 고분으로 추정한다(신중환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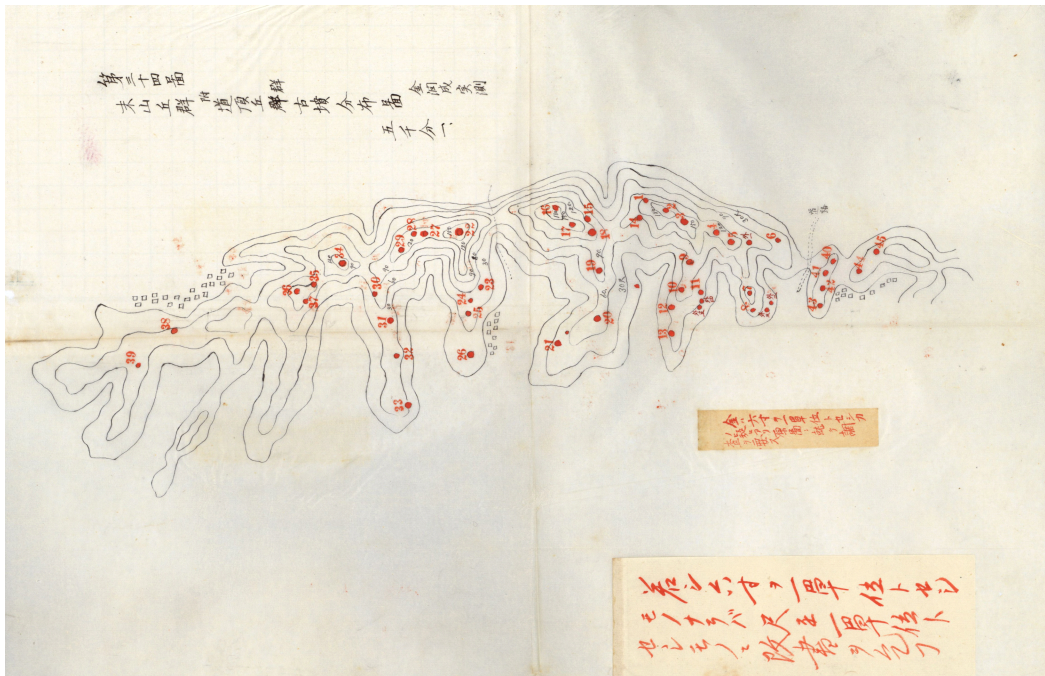
도 6. 고령 지산동고분군(좌부터 12·18·22호분)

1920년 야쓰이 세이이치가 조사한 절상천정총, 1922년 우메하라 스에지가 조사한 1·2·3호분의 위치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도 7. 지산동 절상천정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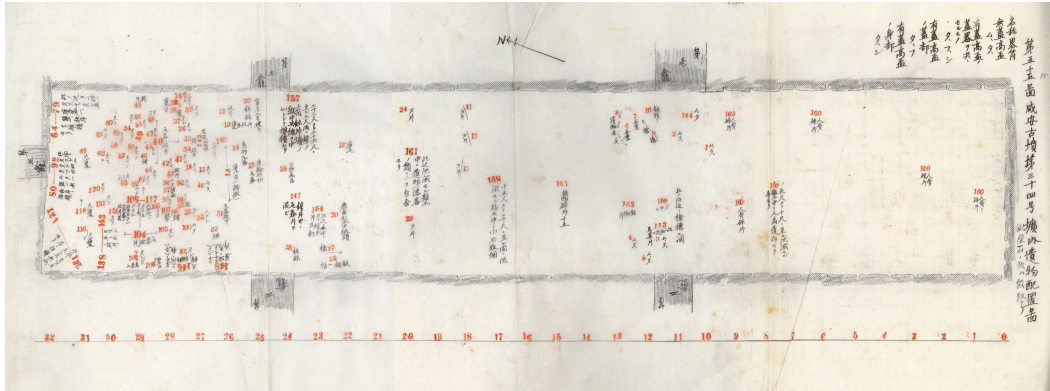
함안지역은 1917년 이마니시 류에 의해 5·34호분, 1918년 야쓰이 세이이치에 의해 1·2호분이 조사되었다. 5호분(현 25호분)은 개석이 부서져 있어 꼭 내부는 발굴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으며,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재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34호분(현 4호분)은 13일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3일간 개석의 한쪽 끝에 도달해 입구를 열고 유물을 반출하였으며 실측을 실시하였다. [도 8]과 [도 9]는 당시에 남긴 도면이다. 야쓰이 세이이치에 의해 조사된 1·2호분(현 13·12호분) 중 2호분(현 12호분)은 보고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유리건판을 통해 그 정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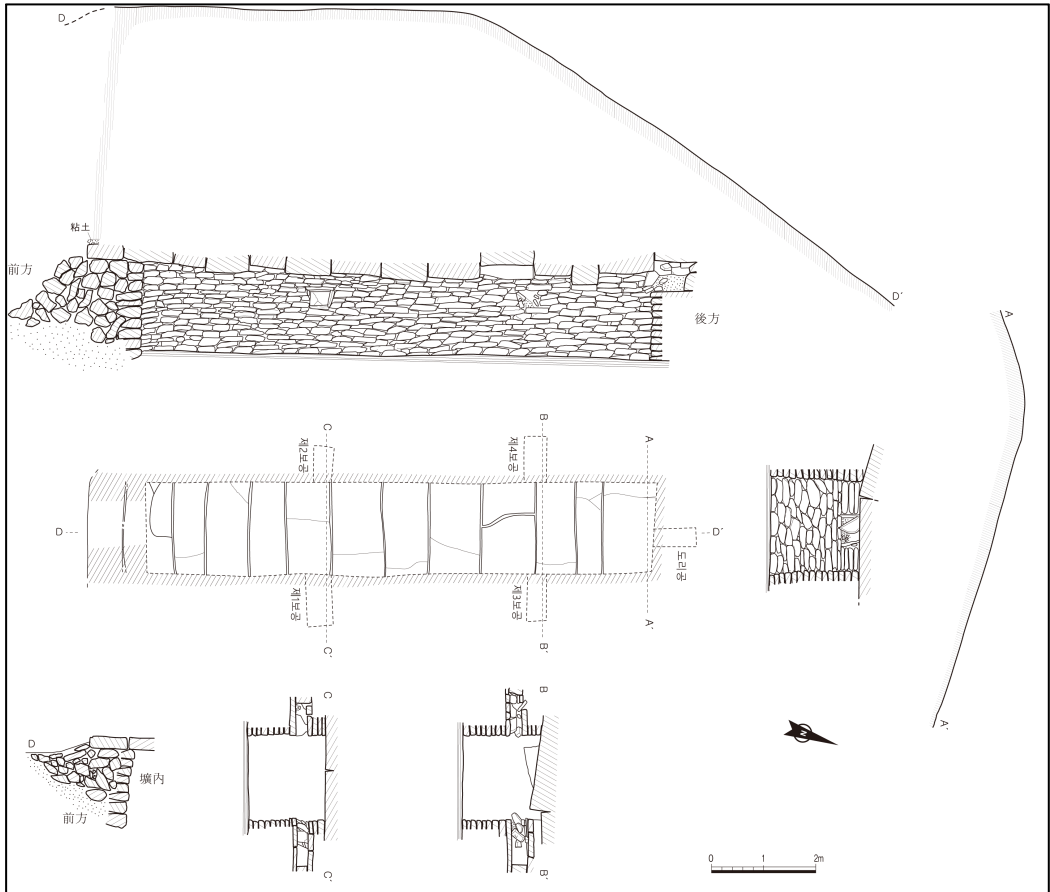
도 8. 함안 말이산고분군 유구배치도

10) 1호분(현 13호분)은 2018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재발굴조사 되었고 2021년에 발굴조사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21, 『함안 말이산고분군 13호분과 주변 고분』



도 9. 함안 말이산 34호분 유물배치도



도 10. 함안 말이산 34호분 평면 및 입단면도(당시 실측된 도면을 재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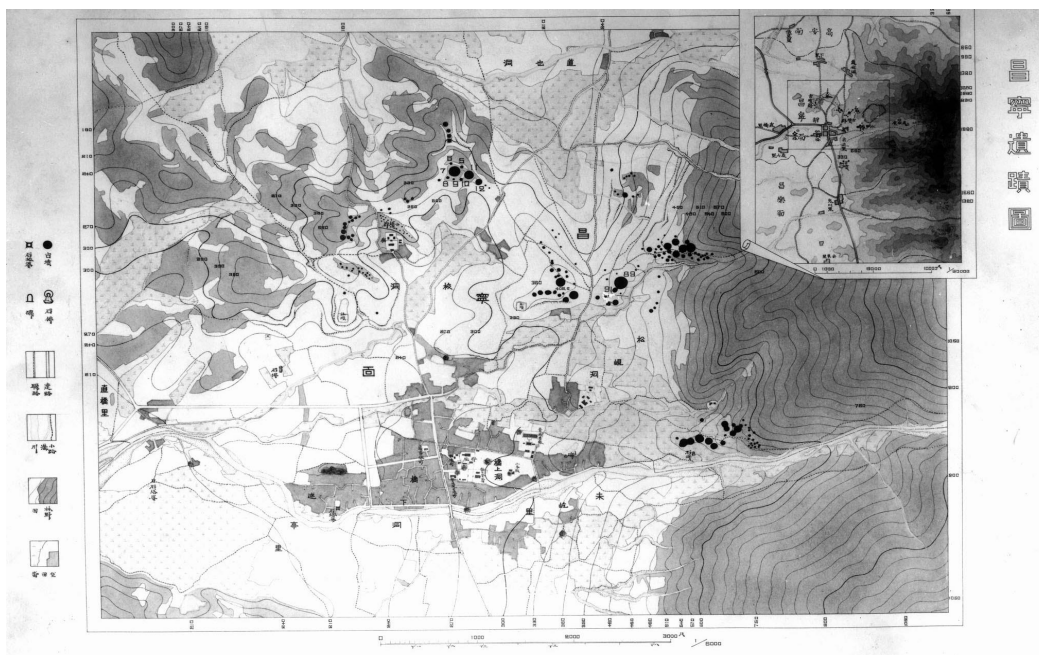
창녕지역은 고적조사 5개년 계획의 2차년도 사업으로 1917년 이마니시 류가 조사하였으나 일 정상 발굴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1918년도에는 처음으로 고적조사위원이 된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가 중소형분인 교동 21·31호분을 발굴하고 1922년 정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도 11. 창녕읍 전경



도 12.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전경



도 13. 창녕유적도

그 외 나머지 고분 9기는 1918년 12월부터 1919년 1월에 걸쳐 야쓰이 세이이치에 의해 조사되었다. 교동 7호분에서는 금동관, 금제이식, 은제대금구 등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당

시 창녕 교동고분군 조사는 마차 20대, 화차 2대 분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전해질만큼 대규모의 발굴조사였다. 그 중 7호분은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11~2012년 재발굴 및 2014년 재보고 되었으며, 국립김해박물관의 자료공개 사업의 일환으로 7호분의 유물자료가 보고되었고, 89호분의 발굴조사 재보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고분의 조사 결과는 정식 보고되지 않고 재보고 등을 통해 일부가 소개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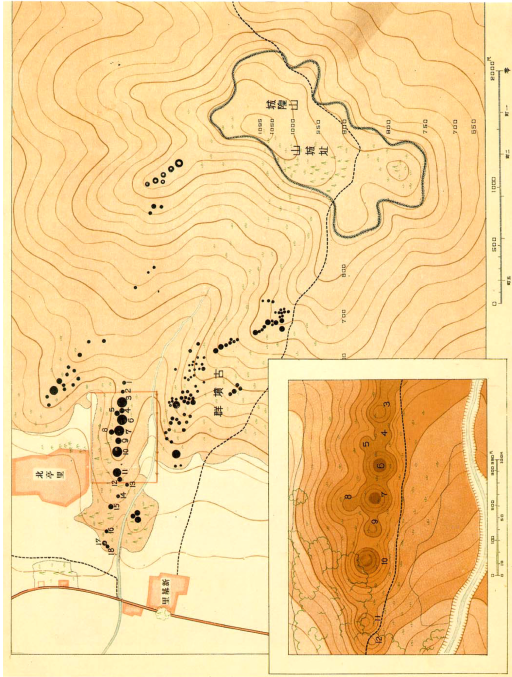
양산지역은 1920년 우마즈카 제이치로(馬場是一郎)와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에 의해 부부총으로 널리 알려진 북정리 10호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완전한 형태의 금동관을 비롯한 489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1927년 정식보고되었다. 하지만 1938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기존의 형태로 도교제실박물관으로 이관되었고, 광복 이후 1962년 한일협정 때도 반환되지 못하고 현재 도교국립박물관에 소장·전시되고 있다. 1990년에는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재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자료까지 함께 보고하였다.

### ▷ 가야고분 조사 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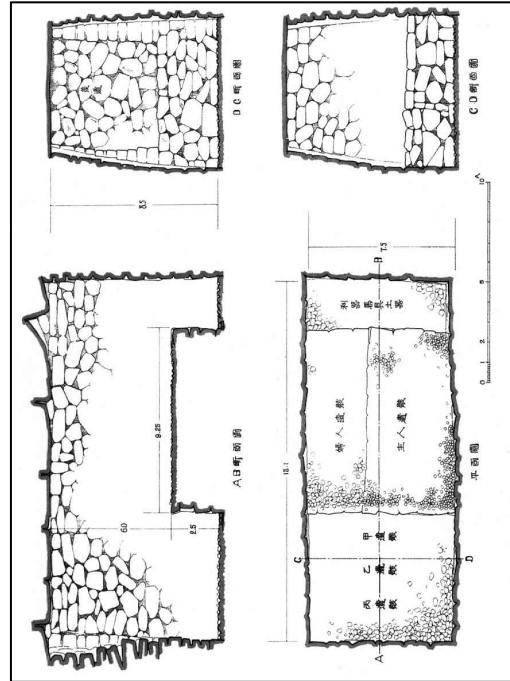
1931년 조선총독부박물관 다나카 슈조(田中十藏)는 창녕 교동고분군 51·52·53·92·116호분의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도굴갱이나 파괴된 일부분을 보수하였고,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116·117호분을 발굴하였으나 정식 보고되지 않아 유리건판자료와 회고담의 자료만 일부 남아있다.

1939년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는 고령 지산동고분군 39호분을 포함한 4기의 고분을 발굴하였으며 후임으로 온 사이토 다다시(齊藤忠)에 의해 완료되었다. 조사 내용은 보고서와 유리건판사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나머지 3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볼 때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최소 6차례 17기의 고분이 조사되었고, 진주는 1회 3기, 고성은 1회 1기, 함안은 4회 6기, 창녕은 4회 13기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중 함안 말이산 4호분과 창녕 교동 7·89호분(교Ⅱ-10) 3기의 재보고만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교동 10호분의 재보고를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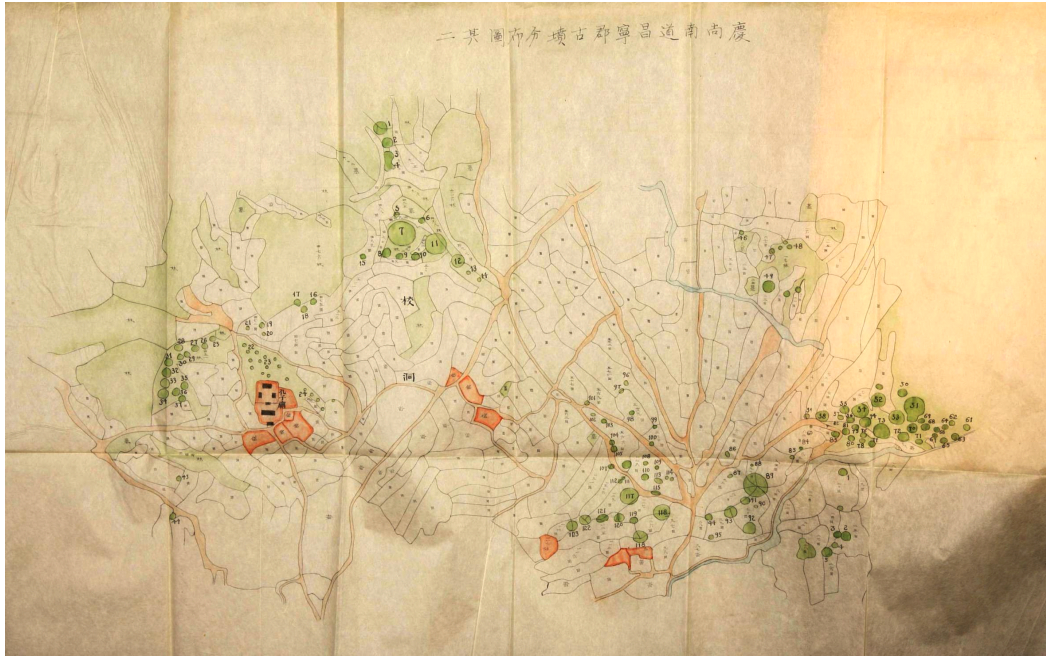
도 14. 양산 북정리고분군 유구배치도



도 15. 양산 북정리 10호분 평면·입단면도



도 16. 양산 북정리 10호분 유물배치도



도 17.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유구배치도(다나카 쥬조 1931년 출장복명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쓰이 세이이치 등 고적조사 담당자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발굴했다. 조사일지·출장복명서는 커녕 발굴조사보고서를 남기지 않은 것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렵פות이 알고 있었던 바와는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민지의 고분이라서 도굴하듯 발굴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의 발굴조사 기술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물론 더 정밀하게 더 많은 자료를 남기고, 유물 수습의 개념 말고 유구와 유적의 개념도 갖춰진 상태에서 발굴조사가 되었으면 더욱 더 좋았겠지만 적어도 일본은 자국의 고분은 평면도·입단면도·유물배치도 다 남기고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분은 유물 수습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발굴조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무작위로 아무 지역의 아무 고분이나 대충 발굴한 것이 아니라 한일합병이 되기 전부터 고고·역사·인류학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선총독부의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 시행을 한 국책사업이었던 것이고 일본 내에서도 최고의 학자들이 최고의 기술로 발굴조사를 한 것이다. 그 당시 일본 보고자료와 비교해도 발굴조사팀에 측량기사와 사진기사가 다 있었고 일본 고분 발굴과 똑같이 진행했다. 아니 오히려 더 선진적인 발굴조사와 도면작성법이 발달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발굴조사로 인해 알려진 고분군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도굴이

만연하게 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며 관에서 행해진 발굴조사 외에 도굴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국고고학에 있어 불행한 일임이 분명하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시기에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전수조사하여 관리하고 국보-보물-고적(현 사적)으로 등급을 나눠 번호 부여를 하여 관리체계를 만들었다. 1933년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 그것인데, 제도적으로 문화재의 관리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중요한 유적은 고적으로 지정하여 통일된 규격의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행정적 관리의 체계 또한 마련하였다. 그 틀을 보완하고 이어져 온 것이 현재의 문화재관리시스템이며 2022년 현재까지도 그 관리체계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한 광범위한 도굴로 이어졌으나 문화재 관리 행정의 틀이 잡힌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한 우리나라의 고고학적 활동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물음에 직면한다. 식민지 조선의 고고학 조사는 대만, 러시아 사할린 남부, 중국 관동주와 만주, 남양지역 등 다른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사전 조사였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원조가 있었던 것은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일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조사는 일본의 선사·고대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이것은 식민사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기성 2018)에 다른 식민지의 조사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배제된 채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한국고고학의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난 10년간 진행된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연구자의 손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그것을 재검토·재해석 해야만 한다. 일제강점기에 발굴된 고분은 반드시 재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재생산한 뒤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재검토 작업이 선행된 후, 일제강점기 자료를 어떻게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한 전초작업이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인 것이다. 즉, 일본 제국주의 고고학의 잔재를 재가공하여 한국고고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며, 자료 공개만으로도 당위성과 명분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자료 공개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자료의 공개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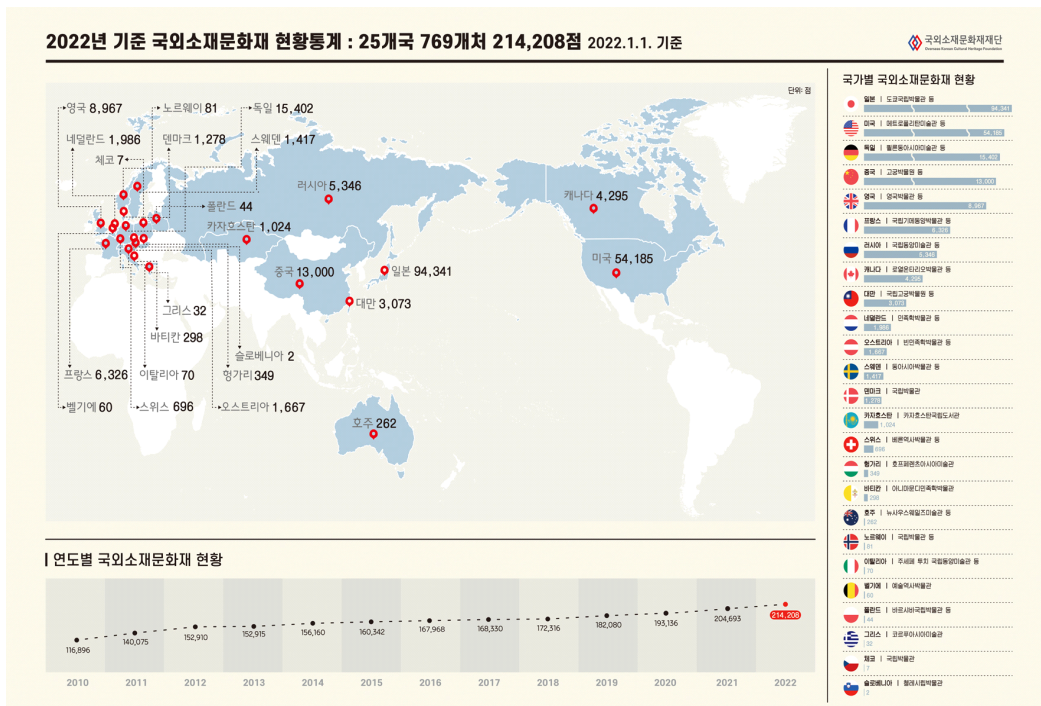
### Ⅲ.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

#### 1.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의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 자료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발간된 자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당시의 조사 내용은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10년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 관련 일반 연구논문을 검색해 보면 일반 연구논문 115편, 학위논문 73편으로 총 188편이 확인되었고 그 중 대부분이 2010년대에 발표되었다고 한다(이기성 2021).

2021~2022년 8월까지 발행된 일반 연구논문은 16편, 학위논문 4편으로 일제강점기 자료의 분석 자체가 한 분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며 자료 공개사업과 관련한 특별전, 학술대회 등 연계된 연구활동의 부산물 중 하나로 개인연구자의 연구영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자료공개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환수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국외 소재 문화재를 파악하고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외한국문화재 총서 발간 현황은 총 18종 27책으로 설립된 이후 10년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일본, 중국 등 동·서양 각지에 반출되어 소장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자료 위주로 단행본이 간행되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문화재 피해자료』, 『오구라컬렉션,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등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자료에 대한 단행본도 간행되어 국외 소재 문화재의 현황파악 및 환수에 대한 끊임없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2년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여 환수받은 문화재와 아직 환수 받지 못한 문화재를 함께 전시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도 19.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민 공감 포럼, 중: 국립고궁박물관특별전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우:(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학술 심포지움)

한편,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도 해당지역의 국외반출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 등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술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2011년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를 설립하고 경상북도 및 영남지역 문화재의 국외 반출 현황을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으로 개편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신라·가야 유물의 반환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정인성(2020)의 『한국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 -1909년과 1910년의 조사내용-』이라 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에 대한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진 않으나 경상남도 산하 경남연구원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의 국외소재 가야유물의 현황 및 관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본현황자료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2. 국외 대학 및 박물관 수장 가야유물 현황(고민정 2021 현재)

수장기관	가야유물		한국문화재 유물(점)
	유적명	수량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양산 북정리고분군 부부총 출토유물	500여점
	도쿄대학총합박물관	진주 옥봉수정봉고분군 출토유물	57점
	아스타(熱田)신궁문화전	가야출토 용봉문화대도	1점
	동양도자박물관	가야신라 용봉문화대도 2점과 금제 이식 20여점	20여점
	화천시구보충기념미술관	가야 용봉문화대도	1점
	덴리(天理)대학참고관	가야신라 금제 이식, 은제 대장식구, 마구, 토기류 등	수점
	아마토(大和)문화관	가야신라 금제 이식	16점
	고려미술관	가야 통형기대	9점
	교토대학총합박물관	김해 회현리패총 출토품	
	하쿠츠루(白鶴)미술관	가야신라 금제 이식	36점
	규슈국립박물관	금관가야 화로형토기	1점
미국	하버드대학 Sacker박물관	가야신라 토기 다수	다수
	보스턴미술관	유개고배, 파수부잔, 대부파수주구부호 등 가야토기 11점, 가야신라 금제 이식 8점, 은제 과대, 가야 용봉문화대도, 곡옥 등	11(다수)점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가야신라 금제태환이식 10점, 수레형토기 등의 가야토기 다수	다수
	스미소니언 프리어미술관	가야 금제 이식 5점, 가야 토기 등	다수
	포틀랜드박물관	화로모양그릇받침, 굽다리곤은목항아리, 짧은목항아리	3점
	오리건대학교 조던슈니처 박물관	뚜껑굽다리접시 2점, 손잡이잔, 굽다리손잡이항아리, 손잡이항아리	5점
	시애틀박물관	짧은목항아리, 긴목항아리, 통형그릇받침, 수레바퀴장식잔 등	10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박물관	유개고배, 방울잔, 단경호 등	1(6)점
	코넬대학교 허버트 F. 존슨 미술관	유개고배, 개배, 장경호, 광구소호, 대부완, 기대 등	13점
	브루클린박물관	유개파수부합, 대부호, 방울잔 등	3점
프랑스	기메 동양미술관	가야 용봉문화대도, 토기 등	다수
영국	영국박물관	화로모양토기, 오리모양토기, 굽다리잔, 뚜껑손잡이달린항아리, 굽다리긴목항아리	9점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긴목항아리, 짧은목항아리, 바리형그릇받침, 소형그릇받침과 긴목항아리 세트 등	7점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그릇받침, 긴목항아리	2점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긴목항아리	1점

이러한 국·공립기관, 법인, 학회 등과 개인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의 기본자료가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산물인 것이다. 자료 공개 자체만으로도 한국고고학사에 획을 그을만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저변의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 일제강점기 공개 자료의 활용 방안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조사에 대해 검토하였고,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일제강점기 공개 자료의 활용 방안을 연구자의 입장과 지자체 담당자의 입장에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도 20. 창녕 교동 7호분 발굴조사 전경(좌: 1918년 조사, 우: 2011년 우리문화재연구원 조사)

필자는 윤이 종계도 (재)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한 2011년 창녕 교동 7호분 발굴조사와 2015년 함안 말이산 25호분의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창녕 교동 7호분의 경우 8분면으로 나눈 뒤 1~4분면은 계단식조사법, 5~8분면은 Tr-층위조사법을 채택, 2구역으로 나누어 봉토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필자는 학부 3학년생이었는데, 5~8분면의 층위조사를 보조하였으며 야쓰이 세이이치의 발굴갱의 교란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발굴갱의 교란부를 걷어내고 나니 봉토 축성방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듯 창녕 교동 7호분의 재발굴조사는 유리관판 사진 몇 장 등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었던 창녕지역 고총축조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학계

의 관심이 집중되어 이후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발굴조사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창녕은 신라와 가야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양자의 입장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지자체에서 진행한 재발굴조사 사업은 창녕 교동 7호분 외에도 함안 말이산 13호분(야쓰이 1호분), 25호분(구 5호분), 4호분(구 34호분), 고성 송학동 1호분이 재발굴조사 되어 보고까지 완료되었다. 하지만 재발굴조사 사업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기관에서는 지극히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인해 발굴조사에 제약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녕과 함안에서 일제강점기 조사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남은 조사분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재발굴조사 사업 외에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후속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최근 5년간 가야고고학의 가장 큰 화두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일 것이다. 필자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창녕군청에서 근무하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담당자로서 근무한 바 있다. 가야고분군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일제강점기 조사분의 재발굴조사를 절실히 느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좌절된 경험이다. 하지만 재발굴조사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를 추진했는데 그 중 하나가 다크투어리즘<sup>11)</sup>과 팸투어,<sup>12)</sup> 사진집 발간<sup>13)</sup>이었다.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은 인류의 죽음이나 슬픔을 대상으로 한 관광으로 어두운 이면의 역사를 배우고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한 관광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아픈 과거를 제대로 배우고 느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다크투어리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던 고분의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 만들고, 이면의 역사를 제대로

11) 위키백과에 의하면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재해피재적지, 전쟁 철거지 등 인류의 죽음이나 슬픔을 대상으로 한 관광으로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또는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불린다. 관광은 일반적으로 오락성이 있는 레저의 하나이지만, 어두운 관광에서는 배움의 수단으로서 파악한다.

12) 한국여사전에 의하면 팸투어는 지방 자치 단체나 여행업체 등이 지역별 관광지나 여행 상품 따위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작가나 여행 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협력업체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 따위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한다.

13) 창녕군, 2021,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전에 담긴 100년의 역사-』

교육하여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유물 환수의 필요성까지 알림으로써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을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크투어리즘은 창녕·함안·고령·고성·진주 등 고적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우선 고적조사가 된 고분군 중 해당 유구를 정비한다. 함안과 창녕의 경우 재발굴 및 복원 정비까지 이루어져있는 고분이 있기 때문에 고분 안내판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둔다. 각 지역의 고분군별로 코스를 짜서 연대순으로 투어를 떠난다. 다크투어리즘에 참가한 관광객들은 이면의 역사를 보고 느끼게 되고 현재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 자연스레 역사의식이 고취될 것이다.

팸투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홍보 사업이다. 사진작가, 여행 전문 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위해 관광·숙박을 제공한다. 인플루언서는 관광·여행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상세히 편집하여 글이나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며, 관련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이다. 일제강점기 자료공개사업을 통해 가야고분의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예산과 학예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자도 활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홍보 외에도 양질의 콘텐츠만 제공되면 홍보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관람객들이 입소문을 타고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창녕군의 보물 영산 만년교가 그런 경우이다. 영산 만년교는 사계절이 아름다워 사진작가들의 사진명소로 알려져 있었으나 SNS 등을 통해 ‘사진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창녕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만년교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서는 등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그 외에도 창녕군에서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진에 담긴 100년의 역사』와 같이 사진모음집을 발간하였다. 단순히 유적과 유물 도록이 아닌 공모전을 통한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고분군의 사진을 모은 것이다. 이 사진모음집에는 1950년대와 현재의 모습, 일본인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고분군의 모습, 조사기관이 보고서에 실지 않은 발굴 조사하는 모습 등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진을 공모를 통해 모아 사진집으로 발간하였다. 특히 지자체에서 1980년대 고분을 정비하던 모습이나 고분조사 전 벌목작업, 조사 후 잔디 정비모습 등이 공개되었으며 일반인들이 소풍장소로 활용했던 고분군의 모습 등 기존의 도록과는 다른 콘셉트로 기획하였고, 고분군의 봄·여름·가을·겨울 전경을 담아 시민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자료공개사업을 통해 공개된 유리건

판사진을 학술총서나 박물관 도록 등 연구서가 아닌 사진집으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책장에 꽂아두고 “우리 동네가 옛날에는...”과 같이 과거를 회상하며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경상남도 창녕군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진행한 사업들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와 관련 있는 사업이 많았으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기초 작업이 일제강점기 자료의 조사와 검토였다. 이러한 선행 작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을 통해 한층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야고분의 경우 자료 공개사업을 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학사적 의미가 있는 작업이며 활용 폭도 넓은 사업이지만, 자료 공개사업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 IV. 맺음말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맺음말을 대신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최근 5년간 가야고고학의 가장 큰 화두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여부일 것이다. 가야고분군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일제강점기 조사분의 재발굴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재발굴 사업을 국립중앙박물관의 각 분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제언한다. 우선 예산의 문제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강점기 재발굴조사분인 창녕 교동 7호분과 함안 말이산 25호분도 발굴재단법인에서 학술조사 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인해 조사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한 고적조사 관련 타 기관 소장자료의 전수조사 및 현황 파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시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모든 문서의 번역 및 해제작업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지자체가 진행해오던 국외문화재의 전수조사 및 환수작업까지 주체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 모든 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립기관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주

체가 되어주기를 제안한다.

물론 자료 공개사업 및 재보고 사업만으로도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기에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분들의 고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 시행 자체가 곧 한국고고학의 명분이며 한국고고학사의 한 획을 그을 훌륭한 작업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앞으로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을 우직하게 이끌어나가기를 그 누구보다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경상북도·(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2013, 『경북지역의 문화재 수난과 국외반출사』.  
\_\_\_\_\_, 2018, 『구한말·일제강점기 경상도지역의 문화재 수난일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가야자료총서 2.
- 국립김해박물관, 2015a,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6집.
- 국립김해박물관, 2015b, 『昌寧 校洞 7號墳』,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18輯.  
\_\_\_\_\_, 2017, 『咸安 末伊山 4號墳(舊 34號墳)』,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26輯.  
\_\_\_\_\_, 2019, 『昌寧 校洞 89號墳』Ⅰ,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33輯.  
\_\_\_\_\_, 2020, 『昌寧 校洞 89號墳』Ⅱ,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34輯.
- 영남고고학회, 2013,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정인성, 2020, 『한국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 -1909년과 1910년의 조사내용-』,  
경상북도·(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 창녕군, 2021,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진에 담긴 100년의 역사-』.
- 창녕군·(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21,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 창녕군·(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종합학술  
연구보고서-』.
-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2013, 『잊을 수 없는 그때 -不忘의 時間-』.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21, 『함안 말이산고분군 13호분과 주변 고분』.

### 2. 논문

- 고민정, 2021, 「국외소재 가야유물 현황 및 관리활용방안」, 『정책연구』 2021-23, 경남연구원.
- 김대환, 2017,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과 한국고고학사」, 『韓國上古史學報』 97, 韓國上古史學會.
- 김수환, 2013, 「일제강점기 창녕·양산지역의 고적조사 -고적조사 5개년기의 고분 발굴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_\_\_\_\_, 2015, 「일제강점기 창녕지역 고분 조사 -고분 조사의 전개와 야츠이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昌寧 校洞 7號墳』, 국립김해박물관.
- 김용성, 2010, 「일본인의 신라고분조사」, 『先史와 古代』 33, 한국고고학회.
- 김혁중, 2021, 「일제강점기 창녕 지역 조사와 새로운 발견」, 『“한국”고고학, 한반도를 넘어서』,  
제4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박천수, 2015,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 반출된 신라·가야문화재의 현황과 과제」, 『영남지역  
문화재의 국외 반출과 관리 방안』,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찾기 학술 심포지움.

경상북도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 박천수, 2021, 「日本 考古學界의 加耶 研究史 -最近 研究를 中心으로-」, 『가야사의 인식변화』, 제27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裴孝元, 2022, 「고고학으로 본 『삼국사기』의 가야 -토기를 중심으로-」, 『『삼국사기』의 가야 인식』, 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국립김해박물관·가야사학회.
- 신중환, 2013a, 「고령지역 문화재의 밀반출에 대한 검토」, 『잊을 수 없는 그때 -不忘의 時間-』, 경상북도·(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 \_\_\_\_\_, 2013b, 「일제강점기 고령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그 영향」,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오영찬, 2022,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 -식민지 역사의 재현과 문화재 관리-』, 일제 식민사학 비판 총서2, 사회평론아카데미.
- 오재진, 2021, 「해방 이후 가야사 인식의 변화」, 『가야사의 인식변화』, 제27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이기성, 2010,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제도에 관한 검토」, 『移住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3,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의 선사시대 조사」,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_\_\_\_\_, 2017, 「한국고고학 형성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118,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8, 「일본 제국주의 시기 고고학 조사의 다양성과 평가」, 『韓國上古史學報』 100,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20, 「일본 고고학 형성기의 식민지 고고학 -초기 대만 고고학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97, 白山學會.
- \_\_\_\_\_, 2021,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 사업에 대한 제언」, 『“한국”고고학, 한반도를 넘어서』, 제4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이성주, 1995, 「帝國主義時代 考古學과 그 殘迹」, 『고문화』 4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_\_\_\_\_, 2013, 「日帝强占期 考古學調査와 그 性格」,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현, 2013, 「일제강점기 진주·함안 지역의 고분조사법 검토」,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_\_\_\_\_, 2019, 「탈식민지고고학의 한계와 문화유산의 재인식」, 『新羅史學報』 47, 新羅史學會.
- 이희준, 1990, 「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2)-」, 『韓國考古學報』 24, 韓國考古學會.

- 정인성, 2010,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移住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 2013, 「종합토론문」,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조성원, 2021, 「일제강점기 가야유적의 조사와 인식」, 『가야사의 인식변화』, 제27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홍보식, 2021,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과 가야사 연구의 방향」, 『가야사의 인식변화』, 제27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高正龍, 1996, 「八木奘三郎の韓國調査」, 『考古學史研究』第6號.
- 關野貞, 1911, 「伽倻時代の遺跡」, 『考古學雜誌』第1卷・第7號.
- 吉井秀夫, 2006, 『植民地朝鮮における考古學的調査の再檢討』(平成15年度~17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 研究成果報告書).
- 藤田亮策, 1933, 「朝鮮考古學略史」, 『トルメン』.
- 梅原末治, 1972, 『朝鮮古代の文化』, 國書刊行會.
- 早乙女雅博, 2010, 『新羅考古學研究』, 同成社.
- 黑板勝美, 1974, 「朝鮮史蹟遺物調査復命書」, 『黑板勝美先生遺文』,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紀念會.

【Abstract】

## The Achievement and Application of the Data Disclosure Project of Gaya Tomb was excav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Bae Hyowon\*

The Gaya tomb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excavated to prove the “Theory of South Joseon Management”(南鮮經營論) and “Theory of Imna-ilbonbu”(任那日本府說), which argued historical text called Records of the *Nihon shoki*(日本書紀). For this reason, several royal tombs such as Changnyeong(Ch’angnyŏng), Haman, and Goryeong(Goryŏng), were excavated, and The Gaya tomb was released to the public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project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l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disclosure of the data is meaningful, and the next step with this disclosure should be reviewing and re-evaluating if archaeological activities conduct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could be evaluated as a category of Korean archaeology. This is up to each researcher’s ability, and these achievements will open a new horizon for Korean archaeology. Furthermore, it is our generation’s responsibility to explore ways to utilize data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era,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ata Disclosure Project, Gaya Tomb, National Museum of Korea

---

\* Associate Curator, Busan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